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강국!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배포 일시	2018. 1. 25.(목) 총 6매(본문 6)	
		담당 자	- 과장 이수호, 사무관 권영규, 사무관 이경환 ☎ 044) 200-5120, 5121, 5122	
보도일시		1월 25일(목) 10:3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업의 재도약 원년”

-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 ① 2018년을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선박신조(50척) 지원,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 도입, 인천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18.4),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
- ②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 스마트 해산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시범조성
 - 참다랑어 상업출하 개시('18.5),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추진(2개소),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3개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1개소)
- ③ 연안·어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 사업,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조건불리수산직불금 대상 확대(쏼도서), 해중경관지구 시범지정, 해안누리길(53개) 테마코스화
- ④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휴어제 및 낚시 관리제 도입 검토,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수산물 안전검사 확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착수
- ⑤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 대형어업지도선(4척) 신규 투입,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연근해 어선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협수로 통항안전성 개선,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
- ⑥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해녀어업의 세계중요어업유산(FAO) 등재 추진,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 금년에는 국정과제 성과를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기조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해양수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아래의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2018년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해운산업 재건 본격화 】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18.7)하여 초기자본금(3.1조원)을 활용한 선박신조발주(50척) 및 선사의 유동성 확보 등 지원
- 해운-조선 상생협약체를 고위급으로 격상(차관급)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18, 42.5억원)제도 도입('18.1)으로 해운-조선 상생협력 추진
- 물류기능 마비 등 긴급 상황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18.上, 법률 제정 추진)

* 국가가 필수화물 수송대 선대 보유·운영, 항만별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

【 항만경쟁력 확보 】

- 인천항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통합부두운영사 출범('18.4, 10→1개社) 및 부산신항에 '국적 물류기업 연합 터미널' 확보 추진('18.下, 선사 운영사 등)
* 터미널별 중복 운영 중인 부대서비스(컨테이너 수리·세척·검역·통관 등) 통합 및 기능 재배치
- 부산신항 인프라(‘컨’부두, 항만배후단지 등) 지속 확충 및 장기물동량, 선박대형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부산항메가포트 육성전략 수립('18.下)
- 항만배후 조기 공급('18.下, 66 m²), 광양항 배후단지 전력시설 확충 및 석유화학부두 증설('18, 설계)

②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 핵심성장 선도과제 추진 본격화 】

-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혁신성장 선도사업)
 -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무인선 제작('18.上) 및 R&D 추진(~'18.4, 기획연구)
 - 연안 100km(現 3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해상 초고속무선통신망(LTE-M) 구축*

* ('18) 동·서해 388개 기지국 설치 → ('19) 남해 구축 → ('20) 쏜해역 시범사업 시행

- 스마트 항만 실현을 위해 부산신항에서 터미널 간 화물정보공유시스템을 시범 운영('18.下)하고, 신규 터미널 하역 자동화 추진
-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육상양식 단지 조성*('18~'20, 혁신성장 선도사업)
 - * 양식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기업·지역어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18.下)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고부가가치 상품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를 개시('18.5)하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 치어 공급, 유통, 기자재 개발·보급 체계 구축('18~)
-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18.下)하고, 해외 수출지원센터 확대(ASEAN, 美동부 등)
 - * 전남 수출가공클러스터('18~, 980억원, 목포, 예타 중) 부산권('18.上 예타 추진)
- 김에 이어 어묵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수립('18.上)
- 수산물 유통단계(6→4단계) 축소를 위한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18, 3개소 착공)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18, 1개소 착공)
-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고, 유통종합단지 건립으로 수산물 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한 수산복합공간 조성

【 해양新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

-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해양수산생명소재의 산업계 분양을 위한 해양 바이오뱅크 구축('18.9), 통합 말미잘 등 활용 복합지혈제 시제품 제작('18.下)
 - *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18.3), 산업지원센터 준공('18.12)
- LNG 추진선박 운항에 대비하여 LNG 공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실증을 위한 실험장 조성
- 창업지원기관 지정('18.上), 창업기업 R&D 의무지원비율(40%) 도입 등 창업지원

③ 연안·어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 어촌뉴딜 300 사업 】

-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18.上) 및 단계적 현대화
 - 소규모 어항·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개소를 선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사업을 통합·집중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 ① 해상교통시설 정비 ② 해양재난사고 대응 ③ 어촌마을 재생 ④ 어촌관광 수요창출

【 청년 귀어 활성화 】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18,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月 1백만원)
* (기존) 수협조합원만 어촌계 가입 → (개선)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18.下)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쏙 도서로 확대('18.上)

【 해양관광 · 레저산업 활성화 】

- 마리나 대중화를 위한 맞춤형 항로 개발('18.上, 기획연구), 의무보험료 인하*('18.上)를 추진하고, 거점마리나 항만 착공(창원, '18.12)
* 업계 의무보험료 : ('17)선박정원 1인당 20만원대 → ('18) 10만원 중반대
-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을 본격화('18.上, 3항차)하여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크루즈 인프라* 확충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준공('18.4), 전용부두 확충('17, 9선석→'18, 12선석)
-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산업을 육성을 위한 「수중레저 기본계획」수립('18.上), 해중경관지구 시범지정, 해안누리길(53개)을 테마코스로 개발
* 해중경관지구 지정기준 마련('18.4), 지자체 대상 공모('18.5)

④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 】

-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전문생산동 건립 등 대량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치어방류 확대('17, 30만마리→ '18, 100만마리)
-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 검토
- 이용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낚시쿠폰제) 등 '낚시관리제 도입' 검토('18.下) 및 포획수 제한, 상업판매 금지 추진

【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 천일염 사용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국민건강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18.下)
- 수산물 분석장비 확충('18, 60억원)으로 안전성 검사율 제고('17, 11%→'19, 20%)하고, 수산약품 실태점검을 강화(연 1회→2회)

【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

-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17.8발의)을 추진하고, 남해안을 대상으로 공간계획 수립 착수
 - * 경기만 시범해역('16~'17) → 남해안('18~'19) → 서해안('19~'20) → 동해안('21) 전역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원부터 수거·처리까지 종합관리대책 마련('18.下)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착수 (5천톤급 1척)로 대형 유류유출 사고 대응 강화

5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

- 독도와 주변해역의 퇴적물, 지각 등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연 2~4회) 및 독도 탐방(사회적 배려층 등),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 확대
- 화순항 해경부두 완공('18.12), 흑산도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착공('18.12) 등 해양영토 관리 인프라 확충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 어업지도선 4척(1,500톤급) 신규 투입('18.10) 및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 보강, 불법조업 단속인력(88명) 확충
- 한·중 협력을 통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18.1)하고,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17, 일시 중단)
 - * 중국어선 불법행위 증거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한·중 간 정보 공유

【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 】

- 對국민 공모를 통해 (가칭)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위촉(권역별 15명 내외, '18.2)하고, 해사안전감독관 인력을 증원('18, 40명)
- 낚시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안전장비 확충,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승선 등 추진('18~)
- 어선 안전규정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어선안전조업법」 제정) 및 연근해 쏜해역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어선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착수('18.下)
- 영흥도 어선사고 등과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좁은 수로의 통항 안전성 평가 및 제도개선(속력 제한 등) 추진

【 해양재난 · 재해 예방 】

- 항만 시설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18, 목포·포항 등)하고, 노후 항만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17개소)
- 경주('16.9) 및 포항지진('17.11) 후속대책으로, 육상과 연계하여 동해남부 연안해역의 해저 활성단층지역 조사 시행
- 대형·고난도 해양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구조·구난 공단 설립 방안 마련('18.下, 보험사·선주 운영비 분담 등)

6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국민의 해양문화 접점 확대 】

- 어업 유산발굴을 위해 쏜해역 실태조사를 실시(~'18.10)하고, 발굴된 어업 유산은 국가·지방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
 - 국내 최초로 세계 중요어업유산(FAO)에 해녀어업 등재 추진('18)
-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예타, '17.9~)

【 해양수산 자원확보 등 국제위상 제고 】

-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의 정밀탐사를 실시(18.下)하고,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3천km) 정밀탐사 추진(계약체결, '18.2)
- 해외어장 자원조사(2~3개 수역)을 통해 신규 어장을 개척하고,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 및 연안국(시에라리온 등) IUU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지원

* 한·러 어업위('18.上), 동방경제포럼('18.下) 대응 등 정부간 협력 강화 및 민관 T/F 운영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어촌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올해를 해양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